순천시, 의대 유치 연구용역 예산 확보

타당성 조사 3억원 편성…순천대와 긴밀 협의·지원

당위성 홍보·서명운동 등 시민 공감대 형성 나서기로

순천의 의대 유치 움직임이 긴밀하다. 물밑 오리발처럼 겉으론 별다른 행보를 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조용하게 관련 예산을 확보,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어서다.

27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예산에 순천대 의과대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 확보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목포대 의과대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3억원이 편성된 것과 같은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순천은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목포와, 달리 자체 예산 확보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발빠르게 의대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에 나서는 모양새다. 다만, 자칫 동·서부권 지역 간 경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순천시는 순천대와 긴밀하게 협의, 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시기·방향을 결정한 뒤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의대 유치를 위한 세부 지원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순천시는 또 정부의 서남대 의대 정원 배분 방안이 가시화되는 시기를 예의 주시하면서 순천대와 공동 대응·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100만 서명운동, 유치 당위성 홍보 등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적극 나선다는 구상이다.

순천시의회도 앞서 '국립순천대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교육부·보건복지부 등을 찾아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유치 활동을 계획중이다.

순천대도 이미 설치한 의대추진본부를 본격 가동하는 한편, 순천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순천시 안팎에서는 다만, 의료기관 부지, 예산 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결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2012년 '순천대 의대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77만명 서명운동'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간담회'(2013년 8월), '여수·순천·광양시행정협의회 공동협력 강구'(2014년 10월),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한 바른길 찾기 공청회(2015년 11월), 의대유치 호소문 발표(2016년 6월) 등 유치 활동을 전개해왔다.

순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서남대 의대 정원 처리방안을 주시하면서 순천대와 의대 유치를 위한 공동 대응·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만정원 올 관람객 600만명 돌파

1000만 관광도시 발돋움 청신호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은 관람객이 600만명을 넘어섰다. 한해 관광객 1000만명이 찾는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청신호가 켜졌다.

27일 순천시에 따르면 양모(45·광주시)씨가 지난 24일 오후 순천만국가정원을 600만번째로 입장, 전체 관람객 6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방문객 54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4계절 테마축제를 열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불러모으는데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을 4계절, 365일 축제가 열리는 공간으로 꾸며 '대한민국 정원문화 트렌드'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에 세워놓은 상태다.

매년 봄꽃축제·여름 물빛축제·가을 정원갈대축제·겨울 별빛축제 등을 열고 주변 순천만습지와 연계, 체험형 생태 프로그램을 마련해 '정원 문화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순천시는 '생태관광 1000만시대!'를 내걸고 내년 950만, 2019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관광 콘텐츠 개발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국가정원 600만 관람객 방문을 디딤돌 삼아 순천을 정원관광의 메카로 만들고 정원문화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지난 24일 600만명 돌파 기념식이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순천시 제공〉

나주 근·현대 모습 한눈에 본다

내년 2월말까지 '기억과 기록' 사진전

옛 나주향교와 금성관, 나주잠사의 모습을 비롯해 나주의 이모저모를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나주시가 나빌레라문화센터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여는 '기억과 기록' 사진전은 지난 1930년부터 1980년대까지 나주의 근현대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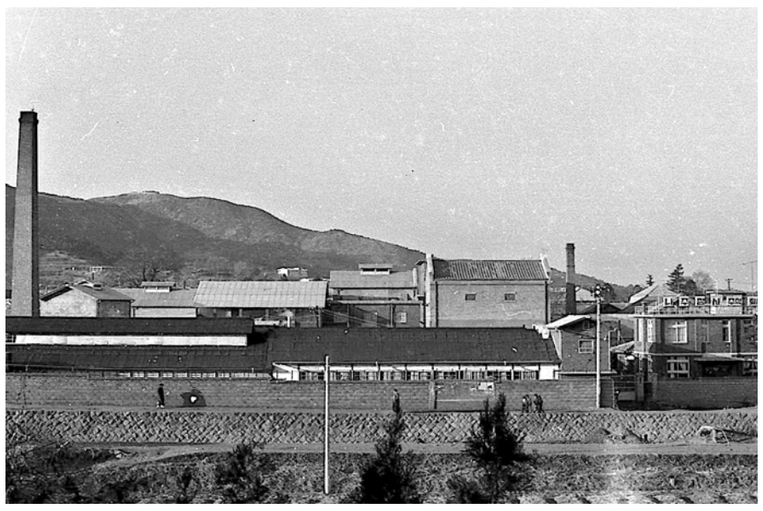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나주시가 전라도 정명 1000년을 기념해 마련한 것으로, 나주의 근현대 모습이 담긴 옛 사진 140여점이 선을 보인다.

양나희 작가가 재활용 골판지를 활용, 옛 골목길 풍경을 표현한 작품 등 20여점과 박상화 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 등도 만나볼 수 있다.

박상화 작가는 미디어아트 작품을 통해 나주지역 근현대 모습을 필름스크린에 투영해 작품 안을 걸어다니며 그 시절 지역민의 삶의 흔적들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가 걸어온 길을 생생하게 되돌아보고 새로운 나주의 꿈을 함께 꾸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나주잠사 옛 모습

LG화학 나주공장 전경.

LG화학 나주공장 증설 관련 시민 요구안 수용

안전·환경개선 강화 실행계획 市에 제출

LG화학 나주공장이 공장 증설과 관련, 시민들의 안전·환경개선 강화 방안을 수용한 실행계획을 나주시에 제출해 주목된다.

27일 LG화학 나주공장에 따르면 공장의 공정, 시설물, 환경 등 운영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문센터와 안전 환경 전광판을 설치키로 했다.

지난 11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LG화학 나주공장 증설과 관련된 설명회에서 제기된 시민들 요구안을 수용한 개선계획을 밝힌 것이다.

LG화학 나주공장측은 공장 견학을 희망하는 경우 매주 금요일마다 공장을 직접 찾아 현황을 들을 수 있고 버스 투어도 실시키로 했다.

지역 내 주요 기관 관계자로 구성한 공장운영감시단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환경 감시활동을 펴기로 했다.

노후설비는 매년 200억 원을 투자해 개선하고 설비 유지 보수에도 50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

특히 냄새와 소음이 나는 설비 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송월 택지 입주예정 아파트와 공장 경계에도 올해 이미 조성한 수목림 880m에 200m를 추가로 심을 계획이다.

LG화학 나주공장은 1984년 한국종합화학을 인수해 지난 30여 년간 공장을 운영중이다.

나주에서는 LG화학이 오는 2018년 말까지 1430억원을 들여 친환경 가소제(可塑劑)공장 증설(1190㎡), 촉매개발 연구센터 건립(3만370㎡) 등을 포함한 공장증설계획이 알려지면서 환경을 우려하는 반발 움직임이 제기된 바 있다.

LG화학 나주공장 관계자는 "공장 투자 설명회에서 나온 시민의 궁금증과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 대책을 마련했다"며 "시민의 안전 확보, 쾌적한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I♥U, 나주'…글자 새긴 나주배 시범재배 성공

'I♥U, 나주'

글자와 문양이 새겨진 나주배를 맛볼 수 있게 됐다. 〈사진〉

나주시는 지역 대표 특산품인 나주배에 글자나 문양을 새긴 이른바 '글자 배' 시범재배에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글자 배 재배에는 부산대 고종수 교수팀이 기술력을 제공했다.

올해는 배 3300여개에 실리콘으로 만든 글자 문양 캡을 끼워 과육에 글자가 파고 들어가도록 했다. 도자기에 음양을 새기는 방식과 같다. 착색을 이용한 글자 사과가 생산된 사례는 있으나 문자 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나주시는 이번 시험재배 결과 수확할 배 무게를 700g 정도로 예상해 실리콘 문양을 제작할 계획이다.

실리콘 문양 가격이 개당 4000~5000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사업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시는 글자 배 생산을 내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해 결혼과 생일 등 특별한 날에 판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경기도 양평, 여수 거문도, 전원주택토지 투자 하실분!

문의.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010-3605-5000